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 이 종 윤

발행처: 서울 장로 교회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517-7651~5

FA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실의 한 해가 되도록

- 연말 년시 일정표 발표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① 책임있는 교회로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② 책임있는 신자로서, 은혜와 질서, 사랑과 평화, 공의와 기쁨을 체험하고 전하며 ③ 책임있는 청지기로서, 죽도록 충성하자는 표어를 걸고 출발한 1993년도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교회 당회는 '94년도 직분자 임명식을 비롯하여 각 부서 총회 일정 및 여러 행사 계획표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온 교회에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11월 28일(주일)은 우리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 날로서 성찬예식, 추수감사예배에 이어 장로장립식이 있게 된다. 그리고 비전 2000운동이 끝나는 11월 21일(주일) 찬양예배시엔 교회설립 감사 특별찬양을 가브리엘 찬양대 주관으로 갖게 된다.

유치부의 추수감사절 특수는 11월 14일(주일) 찬양예배시 갖게되며 성탄절예배 및 행사(12월 24일)는 전교인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중앙대학교 대학극장(흑석동 소재)에서

갓기로 했다.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 임명식은 12월 5일(주일)에, 찬양대원은 12월 12일(주일)과 15일(수)에, 교사는 12월 19일(주일)에 각각 있게 된다. 권사회 총회는 12월 1일(수), 교구총회는 12월 5일(주일), 여전도회는 12월 8일(수), 남선교회는 12월 12일(주일), 실업인선교회는 12월 11일(토), 교사 및 찬양대 총회는 12월 19일~26일 사이에 갖게된다.

비전 2000운동 교구별로 활발히 전개

50일 전도작전인 비전 2000운동이 날이 갈수록 무르익어 가고 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밤10시까지 이어지는 12시간 연속기도회는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려는 다락방별 가족들의 뜨거운 기도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지난 주일동안에도 교구별 모임을 갖고 교회 안팎에서 기도회

와 전략회의 및 단합대회등 그 모습이 활발하였다. 태신자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의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 되도록 교역자와 장로가 함께 기도하는 이번 비전 2000운동은 한 국교회에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94년도 서리집사 면담완료

우리교회 당회는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는 632명의 서리집사를 유임케 하고 추가로 217명의 신임 서리집사를 임명키 위해 지난 10월 20일(수)과 23일(토) 양

일에 걸쳐 면담을 완료하였다.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거쳐 '94년도 서리집사로 오늘 12월 5일 임명을 받게 된다.

피택장로 -당회원들과의 대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되라-

우리교회 당회원 장로들은 7분의 피택장로들과 함께 이종윤 목사 사회로 지난 10월 21일(목) 감리교 여선교회 회관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시중 은혜스런 분위기속에서 선배 장로들은 후배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경험담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주었다. 이날 이종윤 목사는 「땅에 떨어지신」 예수님을 본받되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 자기를 십자가

밑에 완전히 장례 지낼것을 강조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라는 메시지로 격려하셨다.

피택장로 7분은 6개월동안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지난 10월 18일 강남노회 고시부 장로고시에서 좋은 성적으로 전원 합격하여 오는 11월 8일 강남노회의 허락을 받아 11월 28일 우리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된다.

소망부 독감예방주사 실시

소망부(부장 임광식 장로)에 사는 지난 10월 17일(주일)에 환절기를 맞아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했다.

현재 능곡병원 내과과장인 유회동 집사는 소망부원을 비롯 성

도 100여명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년 11월에 이어 두번째로 예방접종 기회를 마련하였고, 당일 주사에는 황승옥 집사와 박효자 집사가 수고해 주었다.



☐...그 사람을

구원에서 제외된 자로 생각지 마라.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구원의 초청을 듣는 것이다.

창세기강해



이종윤 목사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3:8)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인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는 인간의 목소리도 별것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은 공포와 두려운 음성, 심판의 음성으로 그들 귀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어떤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은혜롭게 들리기도 하고, 두렵게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 생각해보겠습니다.

1.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유사 이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말은 기록된 곳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찌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찌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찌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139:7~10)

천국에 가도 지옥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며 햇살의 빠른 광선을 타고 저 바다 끝까지 도망을 친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 행각을 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1:3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불행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앞에서 도망을 치는 일은 불행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1:17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어린 생명이 어머니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울터인데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좌악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속히 인정하고 그 사실을 용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불러주시고 기다리

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매우 축복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여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앞에서 달랑가는 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불행을 가중시킨 것이라면 하나님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복을 누리는 길이요 모든 좋은 것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여전히 돌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끝에서부터 빠져나간다고 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를 배신한 자식을 끝까지 사랑으로 다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부모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나간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었습니까. 이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갔을 때에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픈 심정으로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되 온전하게 돌보십니다. 이 사랑의 품안을 떠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부끄러운 행동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안을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15~17 말씀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눈초리, 어린양의 진노의 눈초리에서 가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마지막 주님 심판의 날이 될 때 이렇게 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직고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한 죄는 먹보다 더 검은 죄라도 흰눈 같이 씻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아벨의 피가 하늘에 솟아서 호소하듯이 모든 죄인들이 자기 죄를 직고하게 될 터이니 우리는 기억나는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다시 심판대에 오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친 것이 인류의 불행이요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면전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6시(성경교실)

극동방송(HLKX 1188KHz)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나의 길길 다가도록)

아세아방송(HLAX 1566KHz) 매주 일요일 오전 8시~30분(주일설교),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50분(재방송)



책임을 다한 삶

선장은 서해 해리호의 통신실에 있었다. 사실은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소문은 그를 비겁한 도망자로 낙인 찍어 버렸고 지명수배까지 내려 검거를 장담하고 있었으니 기막힌 이이러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양심 그리고 도덕성까지 일시에 침몰시킨 미확인 보도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사건 자체에 못지않게 한심한 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를 외치다가 숨겨진 백선장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모독한 안타까운 일이다.

소문과 진실사이에서 그의 유족들은 얼마나 쓰라린 고통속에 가슴치며 울부짖었을까! 사실아닌 소문으로 강요당한 따가운 질서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가슴깊이 맺힌 울분은 사실 확인 정도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비겁한 도망자로부터 끝까지 책임을 다한 명예로운 선장으로의 명예회복은 말문을 닫고 오열하는 미망인의 사진 한 장으로 가능한 것인가?

억측과 소문에 밀려 사실과는 다른 여론재판을 당해 설 곳을 잃고 흐느끼는 사람들이 어찌 이뿐이라. 그러기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에겐 상응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시켜야 공의가 바로 설 것이다.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산화한 장군도 위대하지만 사회일각에서 말없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삶도 높히 평가되어야 한다. 더구나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낙엽지는 창가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자.

갈급한 심령에 끼친 주님의 은혜

정 경 화 목사 (백운교회)

시대는 날로 발전하며 변화되어간다. 사회가, 인간심리가, 과학이, 윤리가, 철학이, 신학이, 삶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양에게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선포하여야 하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안타까웠다. 양은 커가는데 목자는 옛식 옛모습으로 그대로, 아니 성장하지 못한 병든 모습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저기 세미나도 강의도 많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마구 들을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또한 믿을 수 있는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개혁신학원은 우리와 같은 농촌교역자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 지식과 앞서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는 물론 돈이 문제가 아닐 것이나 우리와 같은 농촌벽지 교역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닌지 모르겠다.

여하간 이러한 갈급한 내 심령에 은혜로운 소식이 들려왔으니 그것이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개설한 한국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이다.

한국교회를 다각적인 안목으로 진단,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교회를 갱신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교역자가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므로 마지막 때의 사역을 더욱

픽택장로 7인과의 만남(Ⅳ)

나 회 주 집사



순종을 원칙으로

“그동안 당회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고시를 치루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신앙인으로서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막상 장로로 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행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날의 떨림을 또다시 경험하시는 듯한 나회주 집사님의 말씀이다.

나회주 집사님은 부인 박윤희 집사님 사이에 1남1녀를 두시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며 주위에서 효자로 칭찬을 듣고 있다. 두 분은 다 모태신앙으로 나 집사님 가정은 평안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셨는데 외할아버지가 평안도에 교회를 여러 개척하시고 외국 선교사를 모시고 계시는 등, 어릴적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나집사님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신앙으로 일관해왔다고 하신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는 바로 2년 전, 서울교회를 설립할 즈음이 아니었나 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때가 바로 었그제 같은데 벌써 두 해가 지나갔군요. 교회를 개척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외할아버님의 모습이 요즘 자꾸 생각납니다. 이제는 외할아버님이 하시던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이 자랑스럽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숭실고등학교에서 23년간 봉직하시며 교사와 학생들의 복음화를 힘쓰시는 나 집사님은 학교에서도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시는데 신앙면에서나 생활면에서 외길 인생을 고집하는 나집사님에게 강직함과 성실함을 엿볼 수 있다.

“기도는 물론이고 늘 편안하게 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게 자상하실 수가 없어요. 어느 가정이나 그렇겠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더 큰 축복으로 채우셨습니다.” 박윤희 집사님의 말씀이다.

나회주 집사님은 언제나 우리교회를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자부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를 낮추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봉사할 것을 당부하시며 교회건축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신다.

현재 12교구 교구장으로, 제직회 서기, 그리고 시온찬양대 대장으로 봉사하시는 나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 이제 나회주 집사님은 더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세미나가 나에게 끼친 영적 은혜라면 그것에 뒤지지않는 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적없는 사랑과 봉사인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책망받은 예배소교회와 같은 오늘의 한국교회에 이와같이 순전한 사랑을 정성을 다하여 실천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죽어가는 촛불에 새 불길들이 일어나는 것은 보는 것 같다. 소외당하는 것 같은 외로움, 뜻자리교회라는 아픔도 보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주는 서울교회에 감사하며 서울교회와 그 성도님들과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

